

최연의 산 이야기 <14> 가야산 6

넉넉한 백제의 미소가 가야산 자락에 가득하구나



‘백제의 미소’라 일컫는 서산 마애삼존불. 자연석에 음울색감을 줬다.

보원사지로 들어가는 강당골 초입의 개울 건너 높직한 바위에 은은한 미소를 띠고 일컬어지는 서산 마애삼존불이 꾸밈없는 너그러운 미소를 머금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양각되어 있다.

그런데 강당골은 가야산의 북쪽 산줄기에 기대고 있는 충청도에서는 꽤나 외진 곳인데 하필이면 이런 궁벽한 곳에 부처님을 모셔 놓았을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해서는 먼저 가야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에 대한 이해와 6세기 말의 백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은 수도 위례성기(위례성)를 치우쳐 있어 낙랑과 말갈의 침입을 자주 받기 때문에 한강 이남인 한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후 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3만여 군대로 백제를 공격하였는데, 이때 백제의 개로왕은 아차산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태자 무주와 고구려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산세가 험한 웅진(공주)까지 물러나서 도읍을 정했다. 그 후 성왕 대에 이르러 왕권이 강화되자 그동안 고구려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웅진성이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보고 도읍을 옮겨 백제의 경제력을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교통이 용이하고 평야지대가 펼쳐 있는 사비성(부여)으로 천도하였다. 백제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한성백제시대에는 고구려와도 사이가 좋아서 육로를 통해서 중국과 교역을 하였는데, 한강유역을 고구려에 빼앗기고 웅진까지 남하하여 도읍을 정하고 그 뒤로도 한강유역을 신라가

차지하게 됨으로 더 이상 육로를 통한 중국과의 교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과의 새로운 교역로로 바다길을 모색하였다. 중국의 산둥반도와 가장 가까운 당진, 태안지역이 교역항이 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백제의 수도인 웅진이나 사비로부터 당진과 태안에 이르는 길은 예산의 가야산 길로 서산을 거쳐 갈 수밖에 없다. 즉, 수도와 교역항을 잇는 길은 지형적으로 가야산자락을 거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증환의 <택리지(擇里志)>에도 가야산 주변의 지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공주에서 서북편으로 200리쯤 되는 곳에 가야산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이고 북쪽은 경기도 바다가 고을과 큰 못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는데, 곧 서해가 속 들어온 곳이다. 동쪽은 큰 들판이고 들 가운데에 또 큰 개(浦) 하나가 있다. 개는 유궁진(由宮津)이라 하며 밀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를 이용할 수 없다. 남쪽은 오서산(烏棲山)이 막아 다만 산 동남편으로 공주와 통할 뿐인데 오서산은 가야산에서 온 산맥이다.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열 고을을 함께 내포(內浦)라 한다. 지세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년과 병자년의 두 차례 난리에도 여기에는 적군이 들어오지 않았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

해서 중국과의 교역로의 길목에는 바다 길을 오고갈 상인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할 수 있도록 부처님을 모셨을 것이다. 그 결과로 서산의 마애삼존불과 태안의 마애삼존불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서산 마애삼존불은 본존이 석가여래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시무외 여원인(施無畏與願印)을 하고 있다. 왼쪽엔 관음보살이 입상(立像)으로 연꽃 대좌에 서 있고, 오른쪽엔 미륵보살이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으로 앉아 있다. 이러한 반가사유상은 7세기 초 삼국에 공통으로 보여주었던 신앙형태로서 마애삼존불의 연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태안 마애삼존불은 일반적인 삼존불과는 달리 본존불이 좌우 협시보살보다 작다. 확실하게 세 분의 명칭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왼쪽이 수인으로 봐서 석가여래이고 본존불이 관음보살이고 오른쪽이 원순에 둥근 합을 들고 있어 역사여래로 추정하고 있다. 마모가 심하여 상호의 표정을 느낄 수 없고 무릎 아래는 흙에 묻혀 있는 상태다. 조성 년대는 서산 마애삼존불과 비슷한 시기인 7세기 무렵으로 보이나 형태가 단순하고 조각수법이 소박하고 삼존불이 교리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점들로 미루어 짐작컨대 서산 마애삼존불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백제 최초의 마애삼존불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가는 봄이 고요하다

초록 세상으로 비가 내린다. 어두워진 만큼 무거워진 하늘이 제 무게를 어찌하지 못하고 내려앉는다. 푸르름으로 뒤덮인 세상의 꽃들도 피어나면 웃음을 지우고 땅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땅으로 떨어져 스며드는 물방울 소리가 방안까지 밀려든다. 축축하다. 방도 방안의 나도 비에 젖는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세상을 가득 채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좌좌좌좌 좌좌좌좌, 나뭇잎들이 비를 맞는 소리. 좌좌좌좌 좌좌좌좌, 빗방울이 땅에 내리는 소리. 소리는 들려오지만 조용하다. 빗소리 가득한 세상으로 흐르는 고요의 강에서 가만히 자리나는 것들을 본다. 푸르름으로 가려진 곳에서 푸르름을 먹으며 꿈틀거리는, 생명들의 푸르름을 바라본다. 드러나지 않게 무겁게 자리나는 푸르름. 차마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낙숫물소리도 몸을 움츠렸다.

창밖의 비가 주춤거리며 성긴 틈새를 내보인다. 내려앉은 하늘이 무거움을 떨어내려 는 듯 땅으로 어둠의 조각들을 내려놓는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끄덕’ 고개를 숙였다 다시 일으키는 나뭇잎의 인사를 받으며 나는 잠시 즐겁다. 나무 밑의 풀도 잎을 숙였다 일으키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다. 몸을 숙여 빗방울의 무게를 땅으로 내려놓는 동작으로 나뭇잎과 풀들은 빗속의 삶을 이어간다. 비를 피할 수 없다면, 묵묵히 맞으며 자신의 몸 안에서 받아들여라고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을 기꺼이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문득, 방바닥을 기어가는 검은 물체가 눈에 스친다. 쥐는이풍만한 거미다. 검은 빛이

그래도 세상은 고요하다.

왜 이리 조용할까?

바람도 세상의 고요를

흔들지 못한다.

빛나는 것이 아직 어린 티가 역력하다. 장판이 깔린 바닥이 미끄러운지 박박박박 제자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 겨우 벗어난다 다시 다가 또 다시 바버바박,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발을 움직인다. 그러다 또 앞으로 나아가며 거미는 씹 씹 씹 움직인다. 장난기가 동한 내가 발을 들어, 나아가는 거미의 앞길을 막았다. 거미는 사태를 파악하는 듯, 몸을

세운 채 움직이지 않았다.

“애, 밖으로 내보낼까?”

“아디, 뭘대요? 응, 거미구나. 장롱 밑으로 몰아넣으세요. 벌레들 잡아먹게.”

아내의 말을 따르려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미의 앞을 막아 장롱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만들었다.

“아, 잠깐만 아빠.”

아들이 내 발을 밟아 없던터러니 집게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탱’ 땀기며 거미를 쳐서 장롱 밑으로 사라지게 했다.

“너무 세게 친 거 아니냐?”

아들은 말없이 빙그레 웃는다. 장롱 밑에선 아무런 기척도 없다. 먼지가 쌓여있을 장롱 밑으로 땀겨진 몸을 추스르며 정신을 수습해 서방을 둘러보는 거미의 모습이 눈에 잡힐 듯 했지만 한참을 바라보아도 다시 보이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이 나란히 다시 눕는다. 나도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비에 젖은 세상은 여전히 고요하다. 아내와 아들과 나 그리고 거미 사이에서 벌어진 일도 아무런 소리를 알지 못했다.

잠시 전과는 다르게 빗방울이 사선으로 내린다. 바람이 부는 모양이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린다. 나뭇잎이 몸을 뒤집기도 하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른다. 그래도 세상은 고요하다. 왜 이리 조용할까? 바람도 세상의 고요를 흔들지 못한다.

언제 저렇게 자랐을까? 도랑 옆으로 오가던 길이 자라난 풀들로 덮여 흔적조차 희미하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마당가의 나무들이 앞산을 가로막으며 섰다. 이제 내일이 곧 여름이다.

푸른 것이 푸른 것을 가리며, 가려진 푸르름이 가린 푸르름을 헤치며 푸릇푸릇 자란다. 서로 다투며 자리나는 소리들로 가득한 세상이 꿈틀거리는 것을 본다. 그런데, 그런 데 왜 이리 조용한가?

■유승도 (시인)

신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수공예 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롤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를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밀납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 탕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편집니다. 보편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외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한봉삼 / 02)2004-8216

농민 053-01-289062 (주)한봉삼(주) (주)한봉삼(주)